

〈劔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정인혁**

—<차 례>—

- I. 서론
- II. 石北의 <劔僧傳>과 鶴山の '맹감사 이야기'
- III. <검승전>의 서사화 방식
- IV. 서술자의 정체성
- V. 결론

〈국문초록〉

〈검승전〉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정예병으로 출전하였다가 조선에서 중이 된 검승의 전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검승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논찬부에서는 검승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조선인 검사에 대해 주로 논평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승전〉의 입전인물인 검승의 이야기는 『학산한언』의 '맹감사 이야기'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두 텍스트에서 검승이 재현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즉 〈검승전〉의 경우 검승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객'에 의해 초점화되는 반면,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맹주서라는 실제 인물에 의해 초점화된다. 따라서 '맹감사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맹주서'라는 실제 인물이 검승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검승전〉에서는 가상의 초점화자를 설정함으로써 검승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다.

곧 본문의 서술 대상과 논찬부의 논평 대상의 불일치는 〈검승전〉의 서술 목적이 검승이라는 인물, 또는 그의 기이한 이야기의 기록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

* 논문 작성에 조언을 해주신 대구한의대학교 손정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청주교대 시간강사

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서술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서술자 자신이다. <검승전>의 서술자는 이야기의 재구성을 통해 형상화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승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는 '자기서사'인 것이다.

주제어 <검승전>, 『학산한언』 '맹감사 이야기', 초점화, 초점화자, 전, 자기서사

1. 서론

<劍僧傳>은 石北 申光洙(1712~1775)가 지은 전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인을 입전한 전¹⁾이다.

그런데 <검승전>은 일반적인 전과 달리 입전 인물과 그의 행적에 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논찬부에서 입전 인물인 일본인 검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논찬부에서 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일본인 검승이 아니라

1) 傳은 史傳·假傳·托傳·家傳으로 분류되는데, 史官으로서 기술하느냐, 文士 개인으로서 기술하느냐에 따라 史傳과 私傳으로 나뉜다. 假傳·托傳·家傳이 개인 文士에 의한 私傳에 속한다. 假傳이 사물을 인간화하여 입전한 가상의 이야기이며 托傳은 이규보의 <백운거사전>처럼 어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 반면에 家傳은 실존했던 인물의 삶을 서술한 것이다. 家傳은 다시 한 가문의 뛰어난 인물의 사적을 기술한 것과 한 개인의 행적을 기술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가 한 뛰어난 인물을 입전하여 그 사적을 찬송할 목적에서 지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입전인물의 가문을 찬송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작전자의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作傳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를 인물전, 즉 실존했던 인물을 입전하고 있지만 역사적 관점 또는 가문의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검승전>은 실존 인물을 입전한 전이지만 그의 가치가 역사적인 것은 아닌, 또한 가문사적인 것도 아닌 작전자의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인물전이라 하겠다. 徐師曾, 『문체명변』; 이동근, 「조선후기 인물전의 전개양상」, 『조선후기 <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박혜숙, 「고려후기 '傳'의 展開와 士大夫意識」, 『관악어문연구』 11, 1986, pp.136~146 참조.

검승의 스승인 조선 검사이다.

이는 전의 장르적 관습에 비춰보면 문제적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서술 방향과 입전인물에 대한 관심의 불일치는 기이한 이야기, 奇異之事에 대한 개인적이고 문예적인 관심, 곧 ‘喜氣趣向’ 또는 ‘好奇趣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²⁾ 서술자가 입전인물에 ‘관심’은 갖고 있으나 입전인물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반한 형상화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며 입전인물들의 행적이 작전자의 ‘사상’과는 괴리되기에 주제적인 형상화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의 ‘관심’과 ‘사상’이 하나의 텍스트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서술자가 서술대상과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희병은 이를 작가의 ‘회기취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승전>의 서술자가 기이한 검승에 대해 회기취향 때문에 글로 남겼다면 왜 굳이 전이라는 장르의 형식을 고려했는가 문제가 된다. 대상 자체의 기이함이 글로 남긴 까닭이라면 그냥 ‘검승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중심이 되는 것은 서술자의 ‘사상’이 아니라 이야기의 ‘기록’ 자체에 있게 되며 주체의 사상과 괴리되지만 관심이 가는 대상을 서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희병도 언급하고 있듯이³⁾ 분명히 <검승

2) <검승전>과 관련한 이러한 해석은 박희병에 의해 시작되고 이기현도 같은 입장에서 해석한 바 있다. 박희병,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p.382 ;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서, 1996, p.427.

3) 박희병은 <검승전>을 소설적 경사를 보이는 작품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볼 때 문집에 실린 전의 경우 전을 짓는다는 장르의식하에 창작된 경우가 많고 ‘입전인물의 이름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승전>이 적어도 전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박희병(1993), p.157.

전>은 전의 자장 안에 위치하며 이야기의 단순 기록물인 설화와 구별된다. 그리고 <검승전>이 전의 자장 안에 있다면 서술자의 본질을 규명하는 ‘사상’과 괴리된 인물의 입전은 그 자체로 모순일 수밖에 없다. 즉 대상이 갖는 주제적인 의미, 곧 ‘사상’이 주체의 ‘사상’과 다르다면 주체는 대상과 ‘관계’ 맺을 이유가 없으며, 굳이 ‘관심’을 두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전대상이 의미하는 ‘사상’과 서술자의 ‘사상’이 반대이기에 자신의 ‘사상’과 다른 대상을 입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貶’이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나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승에 대해 비판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하영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정하영은 텍스트를 문면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서술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초점화되지 않은 논찬부의 검승 문제에 대해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자가 논찬부에서 이야기한 바에 집중하여 서술자의 의도를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박희병이나 이기현 등이 제기한 입전인물에 대한 관심과 사상의 괴리라는 문제, 또는 왜 <검사전>이 아니라 <검승전>인가라는 문제의 대안이 되기에는 미진하다.⁴⁾

서술자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서술자의 사상이 괴리되었다는 지적은 <검승전>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서술하는 서술자가 ‘검승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와 논찬부를 서술할 때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같다. 곧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서술자의 ‘동일성’이다. 한 주체의 자기 자신으로서의 동일성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동일성을 ‘정체성’이라 한다면 서술자의 정

4) 정하영, 「<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집, 2002.

<검승전>은 많지 않은 신광수의 전 작품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거의 없다. 박희병에 의해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 외에 본격적으로 <검승전>을 논한 것으로는 정하영의 것이 유일하다.

체성이 문제의 요체인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서술자와 그 서술 대상, 곧 입전인물 간의 관계의 문제이며, 이는 곧 시점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서술자의 인물 서술 방식을 통해 상호간의 거리를 살펴야 한다. 입전인물에 대한 거리두기 방식은 서술자의 '사상'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서술자의 동일성, 정체성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주체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며 입전인물을 서술하는 전에서 타자는 곧 입전인물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고의 목적은 <검승전>의 시점을 통해 서술자와 대상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입전인물이 초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논찬부의 문제를 재고하고 나아가 <검승전>의 서술자의 정체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검승전>의 내용을 살필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검승전>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산 신돈복의 『학산한언』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텍스트를 비교할 것인데 한 텍스트의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를 추론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서술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한 텍스트의 서술자의 대상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론적 잇점을 갖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이들 두 텍스트의 서술자와 대상의 관계에서 추출된 차이점들 가운데 초점화와 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두 텍스트 모두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검승과 검승의 행적을 견문하는 초점화자를 두고 있으며 그 초점화자의 형상이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이 서술자와 초점화자, 그리고 인물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서술자와 인물 간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이 <검승전>의 서술자의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필 것이다.

II. 石北의 〈劔僧傳〉과 鶴山の ‘맹감사 이야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승전>의 내용이 또 다른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辛敦復(1692~1779)의 『鶴山閑言』⁵⁾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학산한언』에 전하는 텍스트는 맹주서가 검승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되어있다. 『학산한언』에는 이 이야기에 별다른 표제가 없으므로 감사 맹주서가 겪은 이야기, 곧 ‘맹감사 이야기’로 칭하겠다.⁶⁾ 김현룡은 『학산한언』에 전하는 것이 검술설화의 표준요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승전>보다 뒤에 씌어진 것으로 보았다.⁷⁾

5) 辛敦復, 『鶴山閑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8, 민족문화사, 1981, pp.383~88. 『학산한언』은 근래 김동욱에 의해 번역되었다. 김동욱 역, 『국역 학산한언』 1, 보고사, 2006. 번역은 원문과의 대조 후 이 책을 따랐다.

6) 신돈복의 ‘맹감사 이야기’는 다시 『청구야담』, 『계산담수』, 『동야휘집』, 『파수편』 등에서도 보인다. 『청구야담』 栖碧外史 海外蒐佚本에는 ‘孟監司東岳聞奇事’로, 『동야휘집』 서울대 가람본에는 ‘試靑萍爲師報仇’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청구야담』을 비롯하여 『동야휘집』에 전하는 것은 검승이 맹주서에게 자신의 검술을 시연한 뒤에 자신이 곧 죽을 것이기에 자신의 자취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말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학산한언』에 전하는 것은 그 뒤에 맹주서가 검승과 헤어진 후에 검승의 죽음 소식을 듣는 것과 검승 관련 <임진록> 기록에 관한 언급이 있다. 『학산한언』의 ‘맹감사 이야기’에는 있는 부분이 왜 『청구야담』과 『동야휘집』에는 없는지, 그리고 그 있고 없음으로 인해 각 작품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검승전>이 관심의 대상이므로 『학산한언』의 ‘맹감사 이야기’와 <검승전>만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더욱이 『학산한언』의 ‘맹감사 이야기’와 『청구야담』 등에 전하는 텍스트는 앞서 언급된 부분 외에 검승의 이야기 자체는 몇몇 자구의 출입을 제외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검승전>과의 비교 텍스트로는 가장 앞선다고 보여지는 『학산한언』의 ‘맹감사 이야기’가 적절하다고 하겠다. 栖碧外史 海外蒐佚本 29 『靑邱野談』 下, 아세아문화사, 1985 및 서대석 편저, 『조선조 문헌설화집요』 I, 집문당, 1991 참조.

7)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6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pp.232~233.

<검승전>

- ① 임진년으로부터 오십여 년 후, 오대산에 독서하는 자가 있었다.
- ② 나이 팔십인 중이 있었는데 정기가 굳세고 영민하였다.
- ③ 중이 독서하는 소리를 즐겨 듣더니 객과 친해졌다.
- ④ 하루는 중이 돌아간 스승의 기일이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 ⑤ 중은 재를 올리며 슬피 통곡하였다.
- ⑥ 객이 그 소리를 듣고 이유를 물었다.
- ⑦ 중이 사실 자신은 가등청정의 특별부대원 중 하나라고 밝히며 그간의 이야기를 하였다.
- ⑧ 중의 특별부대는 별다른 저항도 없이 육진까지 들어갔다.
- ⑨ 높은 암석 위에 도롱이를 입은 사람과 만났다.
- ⑩ 특별부대는 그 사람에게 총을 쏘았다.
- ⑪ 그 사람은 검을 휘둘러 모두 막아냈다.
- ⑫ 그 사람이 내려와서 특별부대의 목을 베니 죽지 않은 자는 중, 자신과 한 왜인뿐이었다.
- ⑬ 그 사람이 자신을 따르겠냐고 물었다.
- ⑭ 중과 왜인은 그 사람을 좇아 산에 들어가 검술을 배웠다.
- ⑮ 스승과 제자가 된 삼인은 명산을 두루 다니며 살았다.
- ⑯ 칼춤을 추며 분노를 뱉어내고야 검술을 거두었다.
- ⑰ 이름과 성은 서로 말하지 않았다.
- ⑱ 그 후로 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왜인이 스승의 목을 베었다.
- ⑲ 왜인은 원수를 갚았으니 함께 일본으로 탈출하자고 하였다.
- ⑳ 중이 왜인을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았다.
- ㉑ 중은 스승도 동포도 사라진 신세를 한탄하며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㉒ 그 뒤 중은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되었다.
- ㉓ 말을 마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 지었다.
- ㉔ 다음날 중은 사라지고 없었다.

㉕ 논찬

‘맹감사 이야기’

- ① 맹감사는 산수 유람을 즐겼다.
- ② 금강산의 한 암자에서 건장하고 예의바른 노승을 만났다.
- ③ 어느 날 노승이 사미승에게 스승의 재 올릴 준비를 시켰다.
- ④ 노승이 스승의 재를 올리며 통곡하였다.
- ⑤ 맹공이 노승의 스승에 대해 물었다.
- ⑥ 노승이 자신은 조선인이 아니며 스승 또한 중이 아니라 선비임을 밝히며 그간의 이야기를 하였다.
- ⑦ 임진년 전 일본에서 여덟 사람을 뽑아 조선에 정탐을 보냈다.
- ⑧ 조선의 지리와 요충지를 몰래 기록하고, 지략과 재주, 용기 있는 조선인을 암살한 뒤에 복명하기로 하였다.
- ⑨ 조선말을 익히고 동래에서 승려로 변장하고 출발하였다.
- ⑩ 떠나기 전에 금강산에서 기도하기로 하였다.
- ⑪ 금강산으로 가는 중 회양 땅에서 소를 타고 오는 선비를 만났다.
- ⑫ 한 왜인이 선비를 죽이고 소를 빼앗아 먹자고 하였다.
- ⑬ 여덟 왜인이 덤벼들자 선비가 주먹을 휘둘러 그중 다섯을 죽였다.
- ⑭ 선비가 배신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겠냐고 묻자 살아남은 세 사람이 하늘에 맹세했다.
- ⑮ 선비는 검법을 가르쳐줄 것이니 왜병이 공격해오면 함께 막아내어 공을 세우자고 하였다.
- ⑯ 세 왜인은 열심히 검술을 익혔고 선비도 그들을 아꼈다.
- ⑰ 어느 날 아침 선비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
- ⑱ 노승이 두 왜인에게 묻자 두 왜인이 원수를 갚았다고 하였다.
- ⑲ 노승은 그들을 꾸짖고 모두 죽였다.
- ⑳ 노승은 사미승 하나를 얻고 암자에 머물렀다.
- ㉑ 맹공이 현명한 스승이 어찌하여 두 왜인의 적심을 모르다가 죽음에 이르

게 되었는데 그를 노승에게 물었다.

- ② 노승은 스승이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재주를 아껴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③ 맹공이 노승의 검술을 구경하고자 하였다.
- ④ 노승이 맹공에게 검술을 선보였다.
- ⑤ 노승은 감탄하는 맹공에게 자신의 자취를 차마 영원히 없앨 수 없어서 말하였노라고 하였다.
- ⑥ 몇 년 뒤 맹공이 금강산에서 온 승려에게 묻자 노승은 이미 죽어 다비를 했다고 하였다.
- ⑦ <임진록>의 관련 기록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각 텍스트의 ①단락에서 검승의 이야기를 목도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검승전>에서는 어느 때,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객’인 반면,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조선 시대에 실존했던 ‘맹주서’로 되어 있다.

임진왜란 후 오십년이 흐른 때에, 오대산에서 독서하는 객이 있었다.⁸⁾

<검승전>

감사 맹주서는 산수 유람을 좋아했는데, 젊어서 일찍이 풍악에 들어가 살살이 찾아다니더니 깊숙한 곳에 이르렀다.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매우 정결하였다.⁹⁾

‘맹감사 이야기’

8) 壬辰後五十餘年, 客有讀書五臺山者.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사, 2005, p.652.

9) 孟監司胄瑞愛山水遊少時嘗入楓岳窮探至幽處深有一庵極精潔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현실화전집』 8, 민족문화사, 1981, p.383.

둘째, 검승이 조선에 오게 된 내력에 차이가 있다. <검승전>에서는 가 등정정의 휘하 정예부대로서 본진에 앞서 출전한 검사인데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임진왜란이 있기 전, 조선의 요충지 등을 염탐하고 조선의 뛰어난 인물들을 암살하는 임무를 갖고 조선에 잠입한 간첩이다. <검승전>의 ⑦단락과 ‘맹감사 이야기’의 ⑦단락부터 ⑧단락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이 흐느끼며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저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가 등정정이 북으로 침입할 때, 검을 잘 쓰는 스무 살 이하의 왜인 오만 명 중에서 삼만을 추리고 삼만 명 중에서 만 명을 취하고 만 명 중에서 다시 삼천을 취하여 본진 앞에 특별 부대로서 두었습니다. 우리들은 백보를 능히 날듯이 공격하였고 공중의 새를 잡을 수 있었으니, 저 또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¹⁰⁾

<검승전>

저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왔지요. ……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는 임진란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본국에서 저를 포함하여 여덟 사람을 선발하였는데 …… 조선의 8도를 각기 나누어 맡아서 조선 산천의 평탄하고 험한 곳, 길의 거리, 관애와 요충지 등을 두루 다니면서 기억해두고, 조선 사람으로 지략이나 제주와 용기로 이름난 사람은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조선말을 익혀 능숙해지자 동래에 있는 왜관으로 나와 조선의 승려로 변장을 하고 ……¹¹⁾

‘맹감사 이야기’

10) “老僧, 非朝鮮人也. 清正之北入也, 簡倭能劔者二十以下, 五萬得三萬, 三萬得萬, 萬得三千, 別部在軍前, 能百步飛擊人, 搏空鳥, 老僧亦其一也. <검승전>, 앞의 책, p.653.

11) 老僧悽然久之曰, 公有問之, 何用隱諱. 吾非朝鮮人也. 來自日本. 師亦非僧卽士人也. 始吾之出來也, 在壬辰之前, 本國選吾等八人, 皆深於詐慮驍勇絕倫者, 使分掌朝鮮八道, 凡朝鮮之山川, 夷淪, 道里遠近, 關隘衝要, 務要遊歷暗記, 凡朝鮮人之智略材勇 名者皆殺之後 始許復命, 八人共習鮮語既熟, 出來東萊倭館 變作朝鮮僧之服 將發之際… 『학산한언』, 앞의 책, p.384.

셋째, <검승전>에서는 객과 검승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서술자의 논찬(25)이 이어지는 반면에 ‘맹감사 이야기’에는 검승의 검술 시연(23~25)과 이후 검승의 죽음에 관한 언급(26)이 있다. 또한 서술자가 일찍이 읽어 알고 있던 <임진록>의 기록과 검승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부분(27)이 있다.

두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임진왜란 때 본진의 공격에 앞서 파견된 일본의 정예 무사이며 이름모를 조선 검사를 만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사제관계를 맺어 함께 지내다가 다른 동료들의 스승 살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같으나 검승의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검승전>에서 검승은 본대에 앞선 선봉 정예병으로 참전하여 본진의 공격에 앞서 조선정벌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간첩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검승전>에서는 중으로 변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 검사를 만났으나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조선어를 익힌 조선승의 모습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검사를 만난다. 조선정벌을 나선 왜병임에는 동일하나 이러한 구체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행위의 차이는 이후 오대산 또는 금강산 암자의 중으로서의 ‘검승’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된다. 또한 검승이라는 인물 해석에 있어서 ‘맹감사 이야기’에는 간단하게 언급된 검사와 검승의 십여 년 간의 행적(14~17) 및 검승이 스승과 동료의 죽음 이후에 암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21)이 <검승전>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반면에 ‘맹감사 이야기’에는 <검승전>에는 없는 검승의 검술 시연이 있으며, <임진록>의 왜적 간첩 이야기로써 맹감사 이야기 속의 검승의 존재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검승’이라는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 두 텍스트 간의 큰 차이점으로 드러나며, 두 이야기 모두 ‘검승’이라는 인물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관심과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텍스트 구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곧 각 텍스트의 서술자가 ‘검승’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들 간의 서사적 거리가 어떠한가를 추론하는데 결정적인 지점이다.

Ⅲ. <검승전>의 서사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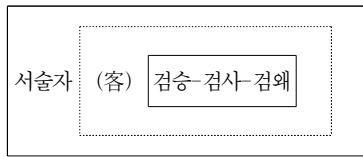
1. 초점화자 ‘客’과 ‘孟曹瑞’의 기능과 의미

<검승전>이 『학산한언』을 비롯한 야담집에 실린 ‘맹감사 이야기’와 다른 것 중 하나가 검승의 이야기를 직접 목도하는 초점화자가 어느 때 누구인지 모르는 ‘客’이라는 점이다.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실존 인물인 孟曹瑞(1622~?)가 초점화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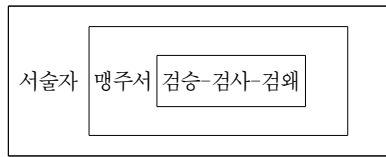
이야기는 일종의 ‘프리즘’ 또는 ‘시각’의 중재를 통하여 텍스트 속에 제시된다. 이러한 중재를 ‘초점화’(focalization)라 한다.¹²⁾ 즉 이야기되는 대상은 그것을 ‘보는’ 행위와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형상화된다. <검승전>과 ‘맹감사 이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검승을 목격하고 검승의 이야기를 듣는 주체, 곧 검승을 ‘보는 주체’(초점화자)와 검승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주체’(서술자, 서술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검승전>과 ‘맹감사 이야기’에서 검승을 목격하고 검승의 이야기를 듣는 초점화자는 각각 ‘客’과 ‘맹감사’이다. 서술자는 이들 초점화자를 통해 중재된 검승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서사텍스트를 서술자가 이야기 대상을 전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의사소통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될 수 있을 것이다. 초점화 대상, 곧 이야기 속의 인물, 곧 검승과 검사, 그리고 함께 목숨을 구했다가 검사를 죽이고 다시 검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왜인(검왜)의

12) S. 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6, p.109.

이야기는 ‘객’과 ‘맹감사’의 시선을 통해 서술자에게 전해지고 서술자는 ‘객’과 ‘맹감사’가 본 것을 서술하고 있다.



<검승전>의 의사소통 구조



‘맹감사 이야기’의 의사소통 구조

두 텍스트의 의사소통 구조는 도시한 바와 같이 동일하다. 다만, 각 텍스트의 서술자에게 검승의 이야기를 중재하고 있는 초점화자가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술자는 초점화자가 검승을 만나 검승의 이야기를 듣는 사건의 외부에 위치한다.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는 ‘맹주서’라는 초점화자를 통해 검승의 이야기를 듣고 서술하는데, 이때 맹주서라는 초점화자의 실제성은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가 검승의 이야기 속으로 투입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실존인물 맹주서에 의해 묵도된 검승의 존재와 그가 겪은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로서 환기된다. 그런 만큼 맹주서가 보고 들은 이야기, 곧 검승 이야기는 서술자에 의해 왜곡되기 어렵다. 더욱이 서술자는 자신이 본 <임진록>의 기록을 통해 맹주서가 만난 금강산의 검승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

내가 <임진록>을 보니 이런 기록이 있었다. 강남인 허의준이 고향을 떠나 장사를 하다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살마도주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는 관백이 노략질을 하러 조선에 쳐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친분이 있던 주군왕을 보내 상국의 변방을 지키는 장수에게 보낸 편지에, ‘관백이 대마도주에게 명하기를, 일곱 사람을 분장시켜 고마에 건너가서 지세를 살펴보고 돌아

와 보고하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여덟 명의 승려가 그들이었다.¹³⁾

따라서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는 검승과 검사 사이에 맹주서라는 초점화자를 두고 있으므로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고 하겠다.

반면에 <검승전>의 초점화자는 그 정체가 모호하다. 그러므로 서술자의 투입 가능성이 있다. 실존인물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전이라고 할 때 오대산에서 독서하던 객이 전해준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전하는 객의 정체는 밝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검승전>의 서술자는 그 신분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검승전>의 초점화자는 ‘객’으로 검승 이야기에 대한 의식의 중심은 초점화자이지만 정작 그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은 서술자이다.¹⁴⁾ 곧 초점화자가 3인칭인 것은 그 초점화자의 시각을 서술자가 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검승에 관한 느낌과 검승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곧 <검승전>의 서술자는 ‘객’이라는 허구적 초점화자를 내세워 자신이 직접 검승과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맹주서 이야기’에서처럼 맹주서라는 초점화자에 의해 목도된 검승과 검승의 이야기가 하나의 고정된 사실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검승전>의 서술자가 검승에 대해 느끼고 검승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검승전>의 서술자는 사실상 이야기 전반을 걸쳐서 검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술자의 직접적인 논평에 검승에 관한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검승전>의 주제가 검승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검승의 이야

13) 余閱壬辰錄有云 江南人許儀俊以客商 杖擄於日本 爲薩摩島主所愛 聞關伯八寇遺 所親朱均旺揖書上國邊帥曰 關伯命對馬島主 扮作七等人 渡高麻相地還報云 蓋此八僧也 『학산한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앞의 책, pp.387~388.

14) S. 리몬-케년, 앞의 책, p.112.

기 뒤에 더하여진 논찬부만 볼 때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정작 <검승전>의 서술자는 초점화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미 검승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검승전>의 서술자가 초점화자를 전용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드러난다.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검사와 검승의 행적과 검승의 자살 시도 부분이다.

스승의 원수를 갚고, 생각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아버 자식 같고 형제와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길에서 스승을 잃고 또 동쪽에서 온 삼천 명의 왜인 검객 가운데 나와 함께 유일하게 남았던 왜인을 내가 죽였으니, 천하에 나 혼자뿐이로다. 일본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만리 땅, 낮은 곳에서 살아감에 또 많은 두려움이 있으니,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갈꼬?’ 마침내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나는 일본인이다. 동해에 뛰어들어 죽어야겠다.’ 동쪽으로 가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큰 바다 물고기가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며 일으킨 큰 파도에 휩싸여 해안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올라 중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잎만을 먹으며 살기를 사십년 동안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¹⁵⁾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맹주서가 본 것’을 기록하는 서술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에 <검승전>의 서술자는 ‘客’에 의한 검승의 초점화를 전용함으로써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5) 既報師讐, 念: ‘吾三人, 若父子兄弟, 一朝塗喪師, 又劔倭東來三千, 吾兩倭在爾, 吾殺其一倭, 顧天下一身已. 日出限漲海萬里, 居異國, 又多畏, 吾獨生何爲?’ 遂大哭, 欲自殺. 又念: ‘我日本人也. 投東澗而死.’ 東走澗自投, 會海大魚鬪, 鼓浪卷落海岸, 不能再投. 卽上五臺爲僧, 食松葉四十年, 不下山. <검승전>, 앞의 책, pp.654~655.

한편 이를 통해 검승의 인물 형상이 ‘맹감사 이야기’의 그것과 다름을 간과할 수 없다.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간첩으로 들어온 검승이 조선말을 익히고 중으로 변장한다. 그러므로 우여곡절 끝에 중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신분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검승전>에서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반드시 중이 되어야 할 개연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검승전>에서 검승이 중이 된 과정을 보면 ‘낮선 곳에서 의지할 이도 없게 된 처지’와 ‘혈육과 같은 유일한 동포를 제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사실’이 그로 하여금 냉혹한 현실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게 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야기를 마치고 검승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와 내력을 이야기해도 되리라 믿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시 일어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서 자취를 감’춘 것¹⁶⁾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신분을 숨기고자 중으로서 행세해왔다면 비밀이 탄로났을 때 몸을 숨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감추어왔던 신분을 왜 굳이 발설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검승전>에서 검승이 객에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미소를 지었다는 부분을 보면 이 의문점은 쉽게 해결된다.

오늘 선비님께 제 평생의 삶을 한 번에 털어놓고자 하였으니, 80 먹은 늙은 중이 어찌 왜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지었다.¹⁷⁾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자 중이 되었지만, 마음 속의 어둡고 비극적이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껏 누구와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없었

16) 정하영, 앞의 글, p.118.

17) 今日爲措大, 一露其平生, 八十僧, 焉用諱倭爲, 言已, 夷然乃笑. <검승전>, p.654.

던 것, 그렇기에 평생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것, 그것을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객을 만나 그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검승은 비로소 마음 속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탄로 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야기는 말하여질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들어줄 이가 있을 때 또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이다. 말할 이야기가 있으되 들어줄 이가 없다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것일 때, 그것을 말하지 못함, 자신에 대해 말하지 못함,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음은 살아있으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로소 검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만한 상대를 만났고 그런 그에게 객은 검승에게 있어서 평생의 단 한 방울의 이슬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에 검승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며, 비로소 검승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임에도 ‘맹감사 이야기’가 검승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그에게 있었던 사건, 곧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맹주서에 의해 목격된 이야기의 서술 자체에 초점이 놓여지는 반면, <검승전>은 그 일을 겪고 있는 ‘검승’의 내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서술자로 하여금 초점화자를 전용하여 직접 검승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검승이라는 인물이 형상화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맹감사 이야기’에서도 ‘검사’라는 인물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승의 이야기’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검사에 관해서는 맹주서가 들은 검승의 언급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검사가 도리어 검왜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이유를 검승을 비롯한 검왜들을 동원하여 왜적을 막았다는 순진한 생각 때문이었다는 검승의 궁색한 발화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맹공이 듣기를 마치고 감탄을 이기지 못하며 말하길, 존사의 밝은 식견과 빼어난 용기로도 두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고 끝내 해를 당한 것은 어찌서입니까? 승이 말하길, 제 스승께서 어찌 두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재주를 아껴서 깊은 은혜로써 목숨을 걸고 나서는 그 힘을 얻으고자 하셨던 거지요.¹⁸⁾

그러나 <검승전>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초점화자를 통한 검승의 발화로 나타나지 않고 서술자에 의해 추론된다. 한편 ‘맹감사 이야기’에서는 검사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없는 대신에 검승의 검술 시연과 검승 이야기에 대한 <임진록> 기록과의 비교가 이어진다. 다음 절에서는 이 부분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서술자와 대상의 거리

다음 인용문은 <검승전>의 논찬부이다.

외사씨 이르기를, “검사는 협객이자 은자로다! 임진왜란 당시, 초야의 용맹하고 굳센 선비들, 곧 홍계남, 김응서 등 많은 이들이 분기탱천하여 적을 막고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검사는 숨어 나오지 않아 공명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다. 왜 그랬는가? ㉠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이들은 임진왜란의 변이 하늘로부터 받은 운수라 구구한 지력으로 가히 그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자고로 지혜와 용기와 이술을 지닌 자들은 변을 면할 수 없었으니, 작은 나라야 더욱 심했던 것이다. 비록 조선의 경우에만도, 남이, 김덕령 등이 모두 이와 같았다. 고로 ㉢검사는 차라리 험준한 산속에

18) 孟公聽罷 不勝感歎曰 以尊師之明識神勇 乃不知兩人者懷不利之心 而終至見害何 僧曰 吾師 豈不知兩人非吉人 而愛其才 欲以深息 得其死力 『학산한언』, p.386.

서 늙어 죽을지언정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 세상에 전해지는 두 사람, 백두은자와 초의객의 류를 만난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검사와 함께 했던 두 왜인은 십수 년을 함께 했으므로 가히 마음 씀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는 적이 되고, 하나는 자식과 같아서, 곁에 있다가 마침내 길에서 적에게 스스로 죽임을 당했으니, 몸을 보호하는 데에는 밝았으나, 사람을 아는 것에는 어두웠도다. 소위 단표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격이로다. 고로 맹자가 이르기를, ‘예 또한 죄가 있도다.’라고 한 것이다. 또한 오대산 노승은 오랑캐이나 기남자로다!¹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협객이자 은자이다.

둘째, 검사는 숨어서 나오지 않아 공명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먼저, 임진왜란의 변이 하늘로부터 받은 운수라 구구한 지력으로 는 그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남이, 김덕령 등의 경우와 같이 지혜와 용기와 이술을 지닌 자들이 변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검사가 십수 년을 함께 한 왜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마치 ‘單豹養內, 虎食其外’와 같다.

넷째, 오대산 노승은 오랑캐이나 기남자이다.²⁰⁾

19) 外史氏曰 劍師俠而隱者乎 當壬辰之難, 草莽勇鷙士, 如洪季男金應瑞輩, 多奮起捍賊, 立奇功. 劍士伏而弗出, 不欲以功名自顯, 何哉. 彼有異術, 誠知壬辰之變, 天數也, 非區區智力可弻. 自古智勇異能之士, 多不免, 小國尤甚焉, 雖以國朝言之, 南怡金德齡皆是已. 故劍師寧老嶮巖, 而弗悔也. 豈世傳二子所遇白頭隱者草衣客之流也歟. 至若不言其姓名, 尤奇矣哉! 然劍師與二倭, 處十數年, 亦可以知心術矣, 一爲賊, 一爲子, 而肘腋之, 卒以其道, 授賊自戕, 明於保身, 闇於知人, 殆所謂單豹養內, 虎食其外者耶. 故孟子曰, 羿亦有罪焉. 抑五臺老僧, 夷狄而奇男子也夫. <검승전>, p.655.

20) 정하영은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첫째, 검사의 신원에 관한 문제, 둘째, 검사와 검사와 검왜 간의 관계, 셋째, 검승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먼저 ‘작자는 검사의 신원과 정체에 대해 협이은자로 규정한다. 둘째, 검왜에 대한 검사의

먼저, 서술자는 검사에 대해 험객이자 은자라고 평가한다. 뛰어난 검술로 거침이 없던 선봉부대를 궤멸시켰기에 험객이지만 홍계남, 김응서처럼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않았기에 은자이다. 서술자는 검사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임진왜란이 하늘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구한 지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임진왜란의 변을 예지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인들의 이야기는 다수 존재한다.²¹⁾ 따라서 이 부분은 ‘검승’만의 능력이라 하기 어렵다.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구별되는 검사의 특징은 바로 두 번째 이유에 있다고 하겠다. 즉, 자신의 미력이나마 발휘하더라도 남이, 김덕령과 같이 도리어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검사로 하여금 세상에 나오지 않고, 명산을 떠돌며 바위와 소나무를 뱀으로써 분노를 풀어내며 살게 했던 이유이다.

스승과 제자 삼인은 팔도 명산을 두루 다니며 매번 한 산에 이를 때마다,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데, 검사가 두 일본인 제자와 10여 년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죽음을 자초했으니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는 밝았으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어두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작자는 검승에 대해 오랑캐이면서도 기이한 남자이다 라는 말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먼저 임란에 검사가 나서지 않은 이유를 서술자가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정하영은 첫 번째 이유, 즉 하늘로부터 받은 운수이기에 임진왜란의 변을 그칠 수 없음을 알았던 때문이라는 부분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서술자는 분명 두 가지 이유로 밝히고 있으며, 연구자가 주목했듯이 임진왜란이 조선의 운수라는 것을 알기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서지 않은 예지력을 갖춘 인물들과 같은 부류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한다.

정하영, 「<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집, 2002, p.96.

21) 정하영은 이와 같은 논리가 『계서야담』의 <朴釋>, <李東臯>편의 皮婿, <鄭陽坡>와 같은 인물 등에게서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같은 글, pp.106~108.

떠를 엮어 집을 짓고 일년, 혹은 반년 씩 기거하다 문득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달이 차오르면 혹 깎아지른 정상에 올라 칼춤을 추니 물 흐르듯 부드럽다가 변하여 바위를 내려치고 높은 소나무를 뱀으로써 분노를 폭발시키고야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과 이름만큼은 말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²²⁾

그러나 서술자가 보기에 이는 검사의 분노를 보여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검사에게 있어 불합리한 사회 현실은 분노의 대상이지만 그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 그저 검술을 통해 분노를 훌어버리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㉔의 서술, ‘검사는 차라리 험준한 산속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승을 입전했으면서도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사라는 이야기 속 인물의 내면까지 추적해 들어간다. 이는 <검승전>의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인물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곧 <검승전>의 인물들은 서술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다. 이는 ‘맹감사 이야기’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검승전>에 없는 ‘맹감사 이야기’의 검승의 검술 시연이나 <임진록> 관련 기록 언급은 바로 그러한 결과이다. ‘맹감사 이야기’에서 검승의 이야기가 끝나자 맹감사는 검승에게 검술 시연을 부탁한다.

22) 師弟子三人, 徧游八道名山, 每至一山, 結茅住一年, 或半年, 輒棄去. 秋深月盛, 或登絕頂, 舞劍器淋漓移時, 擊石斷高松, 怒洩乃止. 然姓名不肯言. <검승전>, p.653.

맹공이 노승에게 청하였다. 상인의 검술을 구경할 수 있을지요. …… 이 뜰날 노승은 맹공을 맞아 한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열 아름은 될 만한 큰 잣나무가 있었는데, 윗가지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노승은 소매 속에서 두 개의 물건을 꺼냈는데, 둥근 것이 마치 공처럼 생긴 것이었다. …… 노승은 쌍검을 잡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²³⁾

이야기의 주인공인 검승이 검술의 달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평생을 피로워했던 검승의 처연한 고백 끝에 이렇게 화려한 검술 시연이 이어지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더욱이 검승은 자신의 검술 시연을 끝마치고 자신의 젊은 시절 실력은 훨씬 나왔다고 자평하면서 ‘차마 자신의 자취를 사라지게 할 수 없어’ 이야기한다고까지 한다.

“기운이 쇠하여 소년 때만 못하다. 내 소년에 이 나무 아래서 검무하면 앞을 가는 실같이 베이더니 이제는 온전한 앞이 많다.” 맹공이 이르길, “선사는 신인이로다.” 노승이 말하길, “내 오래지 않아 죽을 것입니다. 차마 내 자취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없어 이와 같이 공에게 말합니다.”²⁴⁾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고행을 택한 검승과 자신의 검술 실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검승은 호응하지 않는다. 인물의 일관성이 떨어진 다. 물론 인간의 감정은 일관적이기보다 유동적이고 모순적이다. 그렇다면 이는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는 맹감사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입장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맹감사가 본 것을 기록하는 서술자에

23) 孟公仍請曰上人之劍術可得見乎 …… 翌日邀孟供公一處有一栢樹大可十圍上于雲袖出兩物團圓如毬 …… 僧把雙劍起舞始也. 『학산한언』, pp.386~387.

24) 氣衰矣 非復少年時也 始吾牀時 舞劍此樹之下 葉多中破如細絲 今則不然 全葉落者多矣 孟公大異之謂僧曰 上人神人也 僧曰 吾非久死矣 亦不忍吾迹之永泯 故爲言公如此 『학산한언』, p.387.

게 있어서 이야기의 삭제 및 부연은 불필요한 것, 나아가 불가능한 것이다.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맹감사가 보고 들은 이야기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 인물의 일관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맹감사 이야기’가 『청구야담』 등에서는 ‘孟監司東岳聞奇事’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맹감사가 보고 들은 검승과 검승의 이야기가 <임진록>이라는 또 다른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서술자의 확인과 언급은 서술자가 검승, 또는 검사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관심에서 기록하였다기보다는 검승의 기이한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IV. 서술자의 정체성

일반적으로 전은 실제인물을 포괄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는 장르이다. 그렇기에 기술된 인물의 행적과 그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는 합치한다. 하지만 <검승전>은 특이하게도 ‘검승’의 행적을 기록하면서도 논평의 초점은 검사에 맞춰진다. 그렇기에 검승이라는 기이한 인물에 관심을 두면서도 주제의식은 부합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경우, 한 작품, 그것도 단편인 이 작품이 서술자의 관심과 주제의식이 이반되어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곧 작가의 목소리와 정신이 불일치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문제적이다. 글쓰기를 통해 드러나는 반성적인 결정체가 서술적 정체성이라 할 때, <검승전>의 서술적 정체성은 규명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 서술 대상인 검승과 논평의 초점인 검사의 문제는 <검승전>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의

서술적 정체성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흔히 정체성은 주체의 동일성으로 인식된다. 타자에 대해 구별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남에 대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타자와 구별되기 위해서 타자와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남과 다른 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의 서술자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전인물에 대한 관심과 서술자의 사상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성은 사실 상 극히 제한된 경우, 그리고 이론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곧 한 타자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그 특정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 한 주체는 끊임없이 수많은 다양한 타자들과 대면한다. 그렇다면 매번 다른 타자와의 구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때마다 다른 양상으로서의 주체이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이지만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이면서 아들인 정작 그 주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한 주체가 자기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구별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를 주목하는 일이다. 수많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매번 다르게 정의되는 것 가운데 존재하는,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자기자신의 확인이다. 주체가 타자와의 구별 속에서 남이 아닌 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자체동일성’이라 한다면, 수많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자신을 자기자신에게끔 하는 것을 ‘자기동일성’이라 한다.²⁵⁾

25) 정체성은 자체동일성(自體同一性, sameness)와 자기동일성(自己同一性, selfhood)의 두 측면에서 이해된다. 자체동일성이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계되면서 타자와의 구별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라면 자기동일성은 ‘나는 누구이냐’라는 물음과 관계된다. 자체동일성이란 주체 A가 B 또는 C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존재 A를 가능

‘맹감사 이야기’를 비롯한 일반적인 전의 서술자들이 매번, 매 텍스트마다 자신과 다른 타자와 거리를 두고 구별함으로써 확인하는 정체성은 자체동일성의 측면이다. 반면에 <검승전>의 서술자가 텍스트 내의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뜻하며 자체동일성을 넘어 자기동일성을 확인하는 행위의 소산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타자로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화하는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와 달리,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승, 그리고 검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승전>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검승과 검사, 그리고 서술자 자신이다.²⁶⁾ 어찌면, 본사의 서술 대상과 논평 대상의 불일치라는 전 장르 관습의 파격이라는 무리수 속에서 남는 것은 작가 자신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는 ‘객’이라는 가상의 초점화자를 설정함으로써 검승과 검사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가능해진 것이다. ‘맹감사 이야기’에서 검승은 뛰어난 검술을 지닌 기이한 내력의 인물로 대상화된다. 그러나 <검승전>에서는 검승 및 검사라는 서술대상과 서술자의 관계가 표면화된다. <검승전>의 서술자는 대상을 주체로서의 자기자신과 별개의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자기’들로서 형

케 하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B와 C의 대비 속에서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A는 사실 A 자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 A는 ‘B가 아닌 것’이고 ‘C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이때 ‘B가 아닌 것’과 ‘C가 아닌 것’이 동일한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에 대해서나 C에 대해서나 A를 A답게 하는 것, 곧 A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자기동일성이다.

Paul Ricoeur,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Oneself as Anoth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4, pp.1~4, pp.115~125; 김용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p.15~6, p.160 이하 참조.

26) 이런 점에서 정하영이 <검승전>에서 검승이나 검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인물형상에 주목한 것은 <검승전> 이해의 해심을 지목한 것이다.

상화한다.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사와 검승을 규정해야할, 또는 단순히 기록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하나의 자기로서 인식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승의 의식을 초점화하며, 검사의 은둔 이유에 대해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보다 설득력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의 서술 대상과 논평의 초점 대상이 다른 작가의 관심 대상과 주제 의식이 다르기에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이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술자 자신의 자기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일관된 방향 속에서 구성된 ‘자기서사’인 것이다.²⁷⁾

V. 결론

<검승전>은 전임에도 불구하고 입전한 인물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 눈치를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승전>의 시점, 초점화를 중심으로 살폈다.

<검승전>은 같은 내용이 『학산한언』에도 존재하는데 두 텍스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검승의 이야기를 목도하는 초점화자가 각각 누구인지 모를 ‘객’과 실존했던 인물 ‘맹주서’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맹감사 이야기’

27)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된 <검승전>의 서술적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곧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언급되어야 할 것인데, 간단히 언급하자면, ‘隱逸’의 처세관과 여기에서 나아가 은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초월적 인물에 대한 칭송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일 것이다. 검사에 대한 논평의 내용이나 ‘맹주서 이야기’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검술을 자랑하지 않는 검승의 묘사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는 본사의 서술 대상과 논평의 초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본고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다른 논의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학산한언』의 텍스트는 맹주서라는 초점화자에 의해 목도된 검승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에 서술자에 의한 이야기 개입 및 재구성이 불가능한 반면, <검승전>의 경우는 그 실체가 모호한 3인칭화된 ‘객’을 통해 서술자가 검승을 비롯한 인물들에 대해 재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곧 <검승전>의 서술자는 ‘맹감사 이야기’의 서술자가 검승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전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과는 달리 검승과 검사라는 두 인물, 그리고 그 두 인물과 자신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검승전>의 서술자는 검승과 검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진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검승전>은 서술자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 진술하는 ‘자기서사’²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申光洙, <劍僧傳>,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사, 2005, p.652.

辛敦復, 『鶴山閑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8, 민족문화사, 1981, pp.383~388.

28) 자기서사란 자기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서사를 말한다. 곧 자기 자신에 관해 서술하는 것인데,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한 서술은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자기충족적인 자서전보다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동일성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정체성 확립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전이 입전한 인물, 곧 서술대상에 서술의 지향점이 놓이는 반면에 서술자 자신에 서술의 지향점이 있는 텍스트들을 ‘전계 단형서사체’라고 정의한다. 정인혁, 『朝鮮後期傳系 短形敍事體 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 栖碧外史 海外蒐佚本 29 『青邱野談』 下, 아세아문화사, 1985 및 서대석 편저, 『조선조 문헌설화집요』 I, 집문당, 1991.
- 김동욱 역, 『국역 학산한언』 1, 보고사, 2006.
-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설화전집』 8, 민족문화사, 1981, p.383.

2. 논저

-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6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pp.232~33.
- 김용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p.15~6, p.160.
- 박혜숙, 「고려후기 '傳'의 展開와 士大夫意識」, 『관악어문연구』 11, 1986, pp.136~146.
-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 _____,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p.382.
-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사, 1996, p.427.
- 이동근, 「조선후기 인물전의 전개양상」, 『조선후기 <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 정하영, 「<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집, 2002, pp.93~123.
- S. 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6, p.109.
- Paul Ricoeur, translated by Kathleen Blamey, *Oneself as Anoth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4, pp.1~4, pp.115~125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Identity of <Geomseung-Jeon>

Jung, In-Hyouk

<Geomseung-Jeon> is a retrospection of a monk, *Geomseung* who had participated in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un Korea in 1592. He was a swordsman of Japanese army.

So, the experience of *Geomseung* is narrated in the body of the text. But the narrator comment and criticize another character, Korean swordsman who was a preserver and teacher of *Geomseung*.

There is the same story of *Geomseung* at <Story of Maeng-gamsa>, <<Haksanhaneon>>. But a representation method of <Geomseung-Jeon> is different from <Story of Maeng-gamsa>. In the case of <Geomseung-Jeon>, *Geomseung* is focalized by a certain person who is unsubstantial. On the other hand, in <Story of Maeng-gamsa>, *Geomseung* is focalized by *Maeng, Ju-seo* who is a real person. Therefore, the narrator of <Story of Maeng-gamsa> records the story of *Geomseung* as *Maeng, Ju-seo* saw it. But, the narrator of <Geomseung-Jeon> reconstruct the story of *Geomseung* by making a unsubstantial focalizer, a fictional witness.

The narrator of <Geomseung-Jeon> does not record a story of *Geomseung* but state oneself from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Geomseung* and the swordsman. So <Geomseung-Jeon> is a kind of self-narratives.

Key Words <Geomseung-Jeon>, <Story of Maeng-gamsa>, focalization, focalizer, self-narratives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